

온통 칙흑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탑의 내부로 들어선 정명은 그 높이도 넓이도 까마득한 내부를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마치 거대한 동굴 속에 혼자 남겨진 듯 메아리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명은 괜히 들어온 게 아닐까 잠시 의심이 들었다.

‘길이 뚫린 것 같긴 한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게 막막한 어둠 속을 걷길 수 분.

처음엔 손 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던 길이 어느새 점점 좁아져 양 옆으로 이슬 맺힌 차가운 벽돌들이 만져졌다.

그 감촉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했다.

정명이 지금 어딘가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기 작은 불빛이 보여. 저 곳이 끝이구나.’

통로의 끝에 아른거리는 불빛을 따라 또 하염없이 걷다 보니 금세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넓게 트인 공간으로 이어졌다.

사방이 벽돌로 둘러싸여 마치 지하세계의 콜로세움을

연상케 하는 원형의 공간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삼삼 오오 모여 흠어져 있었다.

정명은 처음 이 탑에 들어오던 순간 보았던 안내문을 떠올렸다.

‘참가자가 500명이라더니 진짜였어. 내부가 이 정도로 커 보이진 않았는데 아공간이라 가능한 거겠지.’

자신이 진짜로 현실을 떠나 판타지의 세계로 넘어왔음을 느끼며 정명은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린시절 뛰어놀던 초등학교 운동장처럼 모래가 깔린 바닥 위로 끝을 알 수 없는 높은 천장이 하늘을 덮은 기이한 공간.

천장의 어둠 속에서부터 쇠사슬을 달고 내려온 수 많은 상들리에들의 중심에 꽃힌 커다란 마력석이 조명이 되어 드넓은 실내를 밝히고 있었다.

그때 낯선 공간을 천천히 탐색하던 정명을 발견한 다른 참가자 중 하나가 크게 소리쳤다.

“저기! 마지막 참가자다!”

능글맞게 웃는 그 자의 얼굴을 본 정명은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프롬타뉴의 반지 개인랭킹 2위이자 정명과는 잊을 수 없는 악연으로 남은 녀석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게임 밖에서도 만났을 만큼 친했던 녀석이기엔

그 이름 석자를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서연석. 네 놈도 여길 들어왔구나.’

상대도 자신을 알아본 것을 느낀 정명의 뇌리에 서연석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프롬타뉴의 반지를 거의 접을 뻔했던 때의 기억이 스쳤다.

‘내 손으로 세우고 서버 최고로 키운 화신(化神)길드를 네 놈에게 빼앗겼지.’

과거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료라 믿었던 부길드마스터 서연석에게 배신당해 간부들의 만장일치로 길드에서 내쫓겼던 그 날.

정명은 살면서 처음으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정신을 잃을 만큼 마셨다.

베타서비스 때부터 이어져온 인연들이 뭉쳐 설립한 화신의 깃발을 달고 첫 레이드 콘텐츠 최초 공략, 서버통합 공성전 1위 등 숱한 기록을 세우며 밤을 지새운 게 몇 일이던가.

그 모든 시간들이 허무하게 부정당한 이후로 정명은 줄곧 길드없이 솔로플레이를 고집하며 개인랭킹에만 집착했다.

‘그때 생긴 오기 덕분에 개인랭킹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 같지만. 참 질긴 악연이다.’

정명이 서연석과의 양금을 곱씹는 사이 사람들의 웅성 거림은 커져갔다.

“마지막 참가자? 그럼 이제 이 망할 게임인지 뭔 지도 시작되는 건가? 벌써 몇 시간 째야 이러고 죽치고 있는 게.”

“저 사람은 어디 길드 소속이지? 쟁쟁한 사람들은 거의 참가한 거 같은데 말이야.”

일순간에 499명에 달하는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걸 느낀 정명은 당황한 기색을 비치지 않으려 표정 관리에 집중했다.

아직 서로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금.

이 수 많은 군중에게 첫인상부터 약한 모습으로 기억되면 가장 먼저 저들에게 물어뜯길 테니까.

‘이 게임. 용사의 게임이라 그랬지. 500명의 랭커들을 모아놓고 벌이는 게임이라면 하하호호 웃자고 하는 건 아닐 테지.’

이럴 때일 수록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만큼 좋은 선택은 없었다.

적도 동지도 아닌 중립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저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끈적하게 정명을 위아래로 훑으며 마지막 참가자의 능

력을 가늠하던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은 갑자기 상들리에의 조명 빛이 일제히 암전하면서 흩어졌다.

이윽고 사방에서 쇠창살이 바닥을 내려찍는 굉음이 들려오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놀란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정명은 비교적 출입구 근처에 서있었기에 그 소음이 자신의 등 뒤, 방금 전 들어온 출입구가 닫히는 소리임을 직감했다.

‘진짜 콜로세움이 맞았구나.’

그때 황금색의 빛줄기가 천장의 어둠을 가르고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이 공간의 한 가운데에 내리 쏘였다.

“용사의 게임에 선택받은 후보생 여러분들을 구원의 엘라이안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차분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명징하게 뇌리에 박히는 한 여인의 음성이 후보생 모두의 머리 위에서 울려와 정명은 고개를 들어올렸다.

그곳엔 게임 속과 똑같이 황금빛 금발에 백옥처럼 흰 피부를 가진 여신.

구원의 엘라이안이 흰 옷자락을 나풀거리며 황금 빛줄기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강렬한 후광을 등에 업은 그 성스러운 자태를 영접한 모든 후보생은 자신들이 실제로 ‘프롬타뉴의 반지’ 세계관 속에 들어왔음을 실감했다.

게임의 주 무대인 프롬타뉴 왕국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용사를 내려보낸다는 전설을 가진 구원의 엘라이안.

그녀가 이 게임을 주최한 호스트라는 사실까지도 함께.

“이곳에서 후보생 여러분들은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본인이 용사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세계의 용사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와 게임 속에서 술하게 봐왔던 설정이지만 그렇기에 후보생들 모두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설명 없이도 알고 있었다.

‘내가 용사가 되면 새로운 세계에서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프롬타뉴 왕국, 아니 에우론 대륙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똥똥거리며 살 테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 갈 수 있단 거지? 좋아 뭔지 모를 게임 그 까짓 거 해보지!’

정명은 다른 후보생들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며 마른침을 삼켰다.

‘저들 역시 랭커들이니 용사가 되는 것의 의미를 모르 리 없어.’

물론 정명 역시 용사가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잘 알았기에 이 탑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꼭 막힌 현실의 벽 너머로 나아가기 위해 제 발로 여길 들어온 거라고.’

공중에서 후보생들의 불타오르는 투지를 굽어보던 엘라이안은 흡족한 표정으로 준비된 대사를 이었다.

“허나 후보생 여러분들 중 용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 최고의 자질을 증명한 최후의 1인만이 용사의 징표인 이 반지의 주인이 되어 탑을 떠날 것입니다.”

구원의 엘라이안이 자신의 왼쪽 손등을 보여주자 약지에 끼워진 황금빛 반지가 영롱한 빛을 발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며 구원의 여신이 약속한 용사의 징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정명 역시 자신도 모르게 게임 속에서 나왔던 전설 속 시구를 되뇌었다.

‘프롬타뉴의 반지를 지닌 자. 그가 곧 무너진 모두를 구할 구원의 사도(使徒)이라.’

홀린 듯 반지의 영롱한 빛에 매료되어 있던 정명은 온

몸에 긴장이 퍼지는 걸 자각했다.

이 역시 다른 후보생 모두 느끼는 공통의 감정이었다.

단 한 명만이 저 반지를 낄 수 있다는 건 앞으로 499 명의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각 시나리오 마다 부여되는 2개의 퀘스트들을 모두 성공한 후보생들은 다음 시나리오로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퀘스트라도 실패하거나 도중에 사망하게 될 경우 즉시 탈락 처리됩니다.”

그럼 탈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두의 머리 위로 물음표가 떠오를 때.

구원의 엘라이안은 이 게임의 비정한 룰을 선포했다.

“그리고 모든 탈락자의 존재는 퀘스트 종료시점에 일괄 소멸될 것입니다.”

존재의 소멸.

그 말이 뜻하는 바를 곧바로 이해하는 자는 후보생 중 누구도 없었다.

인간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속한 현상이었으므로.

허나 상식을 벗어난 세계로 들어온 뒤였기에 누구도 그 말의 무게를 알아잡아보는 객기를 부리진 못했다.

“그럼 지금부터 용사의 게임 그 첫 번째 시나리오. 콜로 세움이 시작됩니다. 후보생 여러분들 모두의 무운을 빌겠습니다.”

유일한 광원이었던 엘라이안이 싱그러운 웃음을 남기고 사라진 원형경기장에는 다시 끔찍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이윽고 후보생들의 눈을 가린 그 장막 너머로 철그럭거리는 병장기들의 소음과 발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군필자답게 정명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훈련된 병졸들이 전열을 갖추는 것임을 알았다.

‘대체 어떤 몬스터지? 워낙 몬스터 종류가 많아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데.’

원작을 플레이 하며 겪어본 무기를 착용한 모든 몬스터들이 빠르게 뇌리를 스쳐가던 중.

정명은 전열을 갖추 수 있을 정도로 ‘군집생활을 하는 몬스터’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그 종류가 빠르게 좁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집생활을 하면서 무기를 사용하는 몬스터. 그건 오크 아니면 고블린이다.’

추론이 세워지는 동시에 등 뒤에서 몸이 기억하는 그 특유의 괴성이 들려와 정명은 첫 번째 퀘스트의 적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끼잇! 끼이이잇!”

원작에서도 초보자 때 사냥하는 몬스터인 고블린이었다.

놈들은 약하지만 천성이 포악하여 게임에서도 먼저 단체로 선공을 걸어오는 몬스터였다.

‘제길. 여길 빨리 벗어나자!’

그 즉시 정명은 출입문의 반대편인 콜로세움의 중심부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출입문 앞에 멈춰 있으면 가장 먼저 죽어버릴 게 뻔했기에 최대한 거리를 벌려야 했다.

천장에서 쇠사슬에 매달린 둔중한 물체가 무수히 낙하하는 소리가 엄습한 건 바로 그 때였다.

추락한 돌덩이들이 모랫바닥을 찍는 굉음이 연이어 들려오고.

뒤이어 메아리치는 고통스런 비명들에 온통 귀가 먹먹한 가운데에도 질주를 이어가던 정명의 시야를 갑작스럽게 강렬한 섬광이 가로막았다.

‘윽! 눈이!’

마치 대량의 섬광탄이 폭발한 듯 후보생들 모두가 눈이 부서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이번엔 사방에서 출입구의 쇠창살이 일시에 들어올려지는 소름끼치는 소리가 귀를 파고 들었다.

‘미친. 이 타이밍에 고블린들을 풀어 놓는다고?’

역지로 두 눈을 뜬 정명을 처음 맞이한 건 어느새 눈앞에 열려 있는 퀘스트창과 자신의 상태창이었다.

[시나리오 1. 콜로세움 - 협동퀘스트]

500마리의 고블린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 승리조건: 고블린 진영 전원 살해
- 패배조건: 후보생 진영 전원 사망

생존자 현황

- 후보생: 427/500
- 고블린: 500/500

[용사 후보생 유정명의 상태정보]

레벨: 1

클래스: 수련생

능력치

- 힘: 10
- 지능: 5
- 민첩: 5

- 체력: 10

보유 특성: 【기초 무기술】

대표 캐릭터의 최고 랭킹: 1위

대표 캐릭터 동기화율: 0%

두 개의 창을 재빨리 훑어보고 닫은 정명은 모래바닥에
꽃힌 백 개쯤 되어 보이는 상들리에에 부착된 약 2M
높이의 마력석들이 일제히 발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
다.

그 상들리에들 각각에 후보생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냉
병기들이 5개씩 꽃혀 있는 것까지 확인한 정명은 곧바
로 가장 가까운 상들리에를 향해 질주했다.

“끼끼끼이이이잇! 끼이이잇!”

아직 어안이 뱅뱅한 상태인 후보생들을 향해 덩치가 중
학교 2학년 정도인 고블린들의 군세가 포위해오는 급박
한 상황.

추락한 상들리에 앞에 다다른 정명은 지면에 꽃힌 마력
석에 깔려죽은 후보생의 피 묻은 손을 발견하고 흠칫했
다.

‘가능하면 좋은 곳으로 가라. 난 살아야 겠어.’

그리곤 고민없이 게임 속 주무기였던 양손검 한 자루를

뽐아 들었다.

- 용사의 게임, 끝 -